

# 思考力을 위한 文學教育의 設計\*

김대행\*\*

## I. 問題의 方向

사고력이라는 말은 매우 긍정적인 가치를 스스로 지니고 있는 듯하다. 이 말이 들어 가서 나쁜 뜻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를 입증한다. ‘힘’을 뜻하는 ‘-력’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사고한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이미 그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긍정적인 사고활동에 문학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학의 교육은 어떤 고려가 필요한가? 이 글이 밝히고자 하는 문제는 이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관점이 논의를 흐트치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본질을 멀리 벗어나 뒤튼린 현실적 관행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경우도 더러 본다.<sup>1)</sup> 따라서 먼저 문학과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돈할 필

---

\* 이 논문은 국어교육연구소 주최의 ‘국어교육과 사고력’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문학교육의 구체적인 설계에 대한 지표를 검토하기로 한다.

## II. 觀點의 檢討

### 1. 成長으로서의 敎育

문학이 사고력에 대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어떤 효과’는 바로 ‘교육적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논의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을 정의하는 시각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인간의 성장에 관한 활동’<sup>2)</sup>이라는 정의는 비교적 타당해 보인다. 성장이라면 신체적 성장이 먼저 떠오르지만, 지식, 기술, 판단, 의지 등의 능력에도 적용되고, 한 인간을 전체적으로 특징짓는 개성 혹은 인격에도 적용되며, 개체의 유지와 변화에 관계되는 신념, 욕구, 정서, 감정, 기질, 안목 등의 성품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성장은 증진 혹은 증대 등의 양적 개념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 순화, 균형, 세련, 조화, 통합 등의 질적 개념으로도 이해된다.

교육의 이러한 본질에 기대어 문학이 개인의 사고력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어떤 것보다도 문학은 사고력의 향상에 포괄성과 구체성 및 효율성을 가진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과 사고력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연합하는 기제인 교육에 대한 관점을 명료하게 해 둘 필요가 있겠다.

---

1) 예컨대 “문학은 국어교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언명이 그것이다. 이는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반영한다. 無知하면 과감하고 용감해진다.

2) 이돈희(1993), 『교육적 경험의 이해』, 교육과학사, 3~10면.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면 먼저 학교를 떠올리고 수업의 행태를 생각하고 교재를 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당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이 곧 학교만을 의미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사람의 한 생애는 학교 이외에도 가정, 사회 등 수많은 교육적 기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며, 제도 교육은 사회적 가치가 상당한 지속력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문학이 사고력을 향상시킨다는 문제를 검토할 때에도 문학을 학교에서 영역 또는 교과목으로 부과되는 명칭쯤으로 한정해버리는 것은 문학의 실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외재적 관련에 지나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문제에 대한 바른 접근을 그르칠 염려가 없지 않다.

교육에 대한 통념 가운데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을 받는 사람을 백지 상태로 보는 경향이다. 인간이 지능과 정서에서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지만, 한 생명체가 차가운 공기 속에 노출될 때 이미 거기에는 사회적 혹은 문화적 상태가 어떤 형태로든 주어지게 마련이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의식하건 혹은 의식하지 못하건, 또는 그것의 습득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미 무엇인가가 어떤 상태로 이미 교육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어느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에서는 그 교육되는 주체가 무엇인가를 이미 지닌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을 본능이라고 하건, 아니면 능력이라고 하건, 그 명칭이 무엇이건 간에 인간은 이미 지니고 있는 어떤 상태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지니고 있는 것을 수정하는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학과 사고력이 연관되는 장에서 인간의 정신적 내부에 무엇인가가 새로이 형성되고 혹은 수정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일은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교육을 '인간의 성장에 관한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당하고, 인간은 성장의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삶은 성장의 추구하고 실천이라는 명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문학이건 사고력이건 이미 어느 수준의 교육된 결과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데서 출발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런 관점이 타당한 것이라면, 문학이 사고력에 대해 발휘하는 교육적 기제를 성장의 체계화·풍요화·심화의 활동이라고 보고자 한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성장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이미 도달한 어떤 수준에서 양적·질적으로 더 향상된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이 문학 활동을 통해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 2. 文學을 屬性으로 보기

사고력에 관련하여 문학을 생각하는 관점도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잘못된 문학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교육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문학을 기피하게 된 혐의가 없지 않음을 생각하면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문학’이라는 용어에서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金素月的 ‘엄마야 누나야’이든가, 아니면 黃順元의 ‘소나기’ 같은 것들이다. 아니면 고등학교의 문학 교과서이거나 국어 교육과정상의 한 영역인 ‘문학’이다. 문학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는 현상이지만 문학에 대한 접근을 매우 어렵게 하고 뒤틀리게 한 요인도 된다.

그 까닭을 문학의 실상에서 찾아보면 그 문제점이 쉽게 드러난다. 문학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그 본질이나 속성이 매우 다채롭게 설명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작품 중 그 어느 것도 그러한 문학의 본질이나 속성을 모두 갖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학이 언어예술이라는 것은 문학의 결정적인 필요조건이겠지만, 그 나머지의 본질이며 속성은 그 중 어느 일부만의 조합으로도 문학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문학의 실상이 그러하며, 그것의 변모가 바로 문학사의 흐름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문학을 구체적인 작품으로만, 또는 문학의 역사

로만 이해하려고 드는 것은 문학에 대한 시각을 제한한다. 이 세상의 어떤 문학 작품도 문학에 관한 설명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작품 중심의 문학관은 문학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새로이 읽어야 할 문학작품에 대한 교육적 유연성을 감소시킨다. 학생들에게 읽힐 만한 민요를 찾기 힘들다고 투덜거리거나, 속담이 과연 문학일까 하는 고민은 대체로 이런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문학에 대한 관점을 實體 中心觀과 屬性 中心觀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구체적 작품을 강조하고 거기에 시각을 고정시키는 관점을 실체 중심이라고 한다면, 문학성, 시의식, 산문정신 등의 용어에 숨겨진 시각은 속성 중심의 문학관이라 할 수 있다. 실체 중심의 문학관은 전문적인 문예비평의 시각을 견지하면서 작품 창작을 강조하게 마련이고, 이에 반해 속성 중심의 문학관은 생활로서의 문학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문학적인 글쓰기 등 문학 능력에 주목함으로써 교육적 국면을 중시한다. 바람직한 문학교육을 위해서는, 특히 사고력과 연관되는 문학의 공리성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속성 중심의 문학관 쪽에 서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 까닭은 자국어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는 관점과도 관계가 깊다. 실체 중심의 문학관은 문화유산관(cultural heritage)과 관계가 깊다. 교육받은 엘리트가 지녀야 할 수준으로서의 민족문화에 대한 체질화가 강조된다. 속성 중심의 문학관은 그보다는 개인의 성장(personal growth)과 관계가 더 깊다. 자기 실현을 해 내는 개체로서의 능력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나머지 세 가지 목표인 범교과(cross-curricular), 성인적 필요(adults needs), 문화 분석(cultural analysis)과 함께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sup>3)</sup> 문학에 대한 관점이 실체 중심으로만 기울 때 한 쪽이 강조될 수밖에 없게 된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1997), 「국어과교육의 목표와 영역」(『선청어문』 제25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3~34면)을 참조.

다. 더구나 사고력에 대하여 문학이 발휘하게 되는 능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적 성장이라는 관점의 지지를 더 받도록 문학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 3. 多樣性으로서의 思考力

사고력이라는 말이 '생각하는 힘'으로 풀이되는 것은 다소 모호해 보이면서도 적절해 보인다. 그 까닭은 사고력이라는 용어가 매우 다양한 내포를 지니고 있을뿐더러 논의의 역사도 오래고 그런 만큼 그에 대한 접근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각 작용에 직접 의지하지 않으면서 상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과정이 사고라는 본질의 정의에 동의한다면, 그것이 생각하는 일 이상으로 달리 정의되는 것은 결국 독특한 관점의 표명에 그칠 것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것은 사고의 본질에 대한 관점이 변모에 변모를 거듭해 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새로운 그리고 타당한 판단인 추리를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하여 개념, 판단, 추리를 중시함으로써 이미 습득한 지식의 재활용을 통해 사고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 주목을 한 바 있고, 그런 관점에서 논리법칙이 강조되었다. 그 후 피아제에 이르기까지 사고력이라는 용어에 논리적 냄새가 짙게 배게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서도 '새로움'은 중시되었으며, 사고력을 생산적 방식으로 보아 새로운 견지에서 사태 새로 보기로 규정한 것이 꼭 게스탈트 학파의 공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고력이라는 용어에는 논리성만이 아니라 창의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음이 감지된다. 이를 다시 '認知'라는 용어로 바꾸어 정보 처리 과정이나 능력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도 지각과 기억을 포함하면서 재조직과 생산이라는 본질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의미 있는 차이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충분하고 깊이 있게 논의된, 따라서 그만큼 규정이 다양한

사고력의 재정의나 구조 또는 기능의 규명은 논의의 초점도 아니려니와 능력 밖의 일이기도 하므로 논외로 한다. 그러기보다는 사고력을 규명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들추어 낸 여러 측면이 오류이거나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런 측면이 문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고력이 지닌 다양성에 오히려 충실하는 길이 될 것이다.

### III. 文學과 思考의 關聯 樣相

#### 1. 文學의 形象性和 類推的 思考

문학은 언어로 구축한 형상으로서 自足的인 완결성을 갖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속성은 사고력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세 가지 측면, 즉 언어성, 형상성, 자족성으로 요약된다.

언어는 기호일 뿐 事象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은 언어가 사고력의 중요한 촉매라는 점을 환기시켜 준다. 언어적 매개과정을 중시하여 사고과정을 살피려는 연구 경향이 있는 것도 이러한 속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바람’이라는 기호가 바람 그 자체를 소유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언어로 이루어지는 결과는 지각이 아니라 기억의 재조직이며, 이러한 재조직 과정은 곧 사고과정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언어활동은 그 자체로서 사고과정이며, 활발하고 효율적인 언어활동의 설계는 곧 사고력의 개발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그 활발함과 효율성을 위한 장치가 무엇인가만 고민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문학의 언어는 언어의 이러한 사고적 일반성을 넘어서는 자리에 있다. 문학이 아닌 언어에서 중시되는 것은 지시대상과의 일치 또는 그 적절성이다. 따라서 일상어에서 그 정확성이나 적절성의 평가

는 사실 세계의 대상에 조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반면 문학의 언어는 현실에 조희하지 않는다. 금강산에 가더라도 '나무꾼'이나 '선녀'를 조희하는 바보는 없으며, 徐廷柱의 '애비는 종'이었는지 호적을 뒤지지 않는다.

이것은 문학이 언어로 만들어 낸 별도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형상이며, 별도의 세상이므로 현실 세계의 구체적 무엇을 직접 가리키지 않는다. 그래서 문학을 허구라고도 하고, 상상력의 소산이라고도 한다. 그러기에 문학을 접하는 일은 숲 속에 감추어 둔 보물을 찾기가 아니라 지도로 재개념화하고 그것을 헤아려 보는 일이 된다. 사고력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경험의 재조직이며 그를 통한 새로운 세계의 건설이다.

문학의 형상성이 사고력에 매우 중요한 연관을 갖는 측면이 여기서 드러난다. 현실 세계의 구체적 대상을 환기하는 일은 일회적이고 단선적인 데 비하여 현실 세계와 무관한 별개의 세계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를 요구한다. 만들어 내되 멋대로가 아니라 경험 세계에 근사하게 조직된 것이라야 한다. 문학을 감상하거나 문학적인 글을 쓰는 일은 따라서 경험의 재조직이다. 재조직하는 능력이 곧 사고력임은 앞의 정의에서 이미 드러난 바다. 자연과학의 발전에서도 이러한 재조직과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은 力學理論의 예에서만도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sup>4)</sup>

문학이 만들어 낸 형상이란 쉽게 말하면 그림이다. 대체로 장르의 속성과 관계가 깊지만, 그것은 때로 靜畫이기도 하고 動畫이기도 하다. 그 어느 쪽이건 그것은 현실에 조희하는 것이 아니라 재조직된 경험과 창조될 가능성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은유가 되며 따라서 다의성을 지니게 된다. 이것은 문학의 숙명이다.

이 숙명이 곧바로 창의력을 위한 사고력의 기반으로 강조되는 미덕

4) 예를 들어, 운동이나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에서 '마찰 계수는 0'이라는 가정을 곧잘 하는데, 마찰 계수가 0인 경우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상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



이다. 사고의 기능을 창조와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은 새로운 상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창의성의 개발을 위해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은유적 사고가 창의력 유발 요인으로 매우 중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의 형상이 지닌 의미를 다양하게 추리하는 힘이 사고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바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창의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애매성<sup>5)</sup>에 빠지게 하라는 이론을 굳이 빌어오지 않더라도 애매성이 곧 多義性과 동의어이며 多義性이 사고를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가는 노스트라다무스나 土亭秘訣을 통해 충분히 체험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다의적 사고는 유추적 사고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문학적 유추는 그 본질이기도 하므로 경험적 혹은 개념적 유추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풍요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1:1의 관계가 아니라 1:多의 관계다. 과학적 발명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대체로 유추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므로 문학과 사고력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는 쉽사리 이해된다. 유사성의 근거만으로도 추리적 사고는 왕성하고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창의성이라는 것이 대체로 無에서 有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주를 달리한 암시에서 촉발되고 생산된다는 점을 재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 文學의 體驗性과 思考의 具體性

문학은 체험의 표현이라는 명제는 문학이 우리와 세계의 관계를 형상화한 것임을 말해 준다. 우리와 세계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며, 그래서 어느 하나도 동일하지 않은 문학작품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세계 속에 '저'가 맺는 관계를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살아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의미 있고 가

5) Dacey, John S.(1989), *Fundamentals of Creative Thinking*, Lexington Books, pp.18~20.

치 있는 것으로 표현되면 문학이 된다.

문학의 이러한 성격은 작품 읽기가 곧 정보의 획득이라는 말로 바꾸어질 수 있다. 우리는 정보라고 하면 생활적 필요나 직접성을 떠올리고 즉각적인 효용을 생각하는 표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즉각적 실용에 닿는 정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영위될 수는 없다. 인간이기를 지향하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심층적 소용에 닿는 정보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학은 나를 둘러싼 세계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규정하고 또 충동하며 압박하고 고무하는가를 말해 준다. 적어도 문학은 그런 것을 드러내는 일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개개의 문학작품이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정보들이다. 말하자면 삶의 근원에 닿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습득은 우리의 사고를 풍요롭게 하고 발전하게 한다.

어린이의 사고력에 관해 성찰한 비코는 '어린이는 추리를 할 수 있지만 어린시절에는 추리할 소재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sup>6)</sup> 따라서 형식논리를 가르치기보다 경험을 부여하라고 권한다. 듀이도 비슷한 뜻의 말을 했다. '사고라고 일컫는 발전적인 경험의 최초 단계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견해는 얼마든지 더 있다. 지식의 획득도 그 자체가 경험이라는 말도 그러하고, 기억은 대체로 심상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도 그러하다. 따라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도 개념이나 원리 또는 규칙이나 법칙과 같은 명제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은 그 필요조건을 말한 것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도 비슷한 뜻을 지닌다.

이들은 모두 사고가 경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을 드러내고 있다. 문학이 체험의 표현이라는 속성은 형상성과 연합하면서 경험으로서의

6) Lipman, M & Sharp, A. M.(1986), *Growing up with Philosophy*, 여훈근 외 옮김, 『세 살철학 여든까지』, 정음사, 27~31면.

구체성을 지닌다.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은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문학을 통한 경험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일은 사고력의 향상을 위해 인류가 고안한 최상의 제1단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인간의 직접체험은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라는 간접체험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기서 되새길 필요는 없겠으나 경험의 구체성으로 말한다면 그 어떤 언어표현물보다도 문학은 강렬하고 우선적이다.

문학이 형상화하는 경험이 認知와 情意의 양쪽에 두루 걸쳐 있다는 점도 사고력과 관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고력이라고 하면 으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연상하는 경향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사고에는 감성적 경험이 수반된다고 하였고, 경험주의자들은 사고활동의 요체로 감성적 경험을 꼽았으며, 사고의 동기를 주체와 쌍방의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정서적 일관성이 기억에 도움이 되며 인지조차도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사고가 결코 논리나 인지만의 단독 작용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한 때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가 감성과 이성의 기능을 갈라 말아서 작용한다는 가정이 림빅 시스템의 발견으로 부정된<sup>7)</sup> 것이나, 지능의 박약이 대체로 정서적 박약을 겸한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점으로 보아 사고는 정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 정서라는 것의 본질도 모순되는 충동에 의한 심리적 불균형을 이성의 간여에 의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흐름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인지와 정서의 관계에 대한 여러 견해와 사실은 문학이 형상화하는 체험의 포괄성이 사고력의 기반이 되는 경험으로서 매우 효율적임을 드러내 준다고 하겠다. 여기서 사변적이기를 잠시 멈추고 실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

7) 송준만(1981), 『정신문화와 두뇌』, 교문사, 46~52면.

이 사려가 깊어지는 것은 무엇에 근원하는 것일까를 두고 생각하면 문학과 사고력의 관계가 자명해진다. 문학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그 생각함의 근원이 바로 사고 자료로서의 경험적 구체성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을 세우고 일의적 해답을 얻기 위해 벌이는 과학적 실험에 비긴다면 문학은 훨씬 더 많은 사고 자료를 다양하게 분사하는 구체적 자료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 3. 文學의 文化性과 批判的 思考

문학은 사람이 만들어 낸다. 만들어지는 속성을 조명하여 설명한 많은 말들을 여기서는 아껴도 좋을 듯하다. 그것은 문학의 본질이며 권능이기도 하다. 이 권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知的 產物로서의 文化’라는 인식에 이른다. 이 때 知的이라는 말은 사고과정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해도 좋겠다.

그러기에 문학적인 글쓰기는 발견에서 실행과 평가와 수정에 이르는 일관된 과정이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지적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없던 것을 만드는 일이기에 생산이며 창조이다. 그리고 남들이 형상한 것과는 달라야 하므로 새로운 발견이다. 매슈 아놀드가 문학을 고급 문화로 본 것은 이런 시각에서다. 이것이 사고과정에 해당한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문학적인 글쓰기는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사고과정을 거친다.

문학은 이처럼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한 개인적 발견을 본질로 하지만 그것은 남에게 이해되어야하므로 자신의 독창적 언어이면서 남들이 공유하는 언어로 쓰게 된다. 아니 그 독창적인 것을 구상하는 그 생각이 벌써 남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게 된다. 이것이 ‘삶의 方式으로서의 文化’인 문학의 세계이다. 한 때 베스트 셀러가 되었던 무협소설이 잔혹 西部劇 마카로니 웨스턴과 中國式 水滸志의 모자이크라는 평이 나오게 되는 것도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사는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의 표백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다운 가치가 담겨 있고, 신념이 있으며, 우리 것인 기준이 있고, 그 짜임이 있다고 믿는 것은 민족 문화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외국에서 인기를 모은 상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꼭 베스트 셀러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따라서 창의력이라는 것도 이러한 문화의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물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그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생각을 우리답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구체적 경험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문학이 지닌 경험성과 연관되는 문제이고, 그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이제 비판적 사고의 몫이 된다. 즉 문학은 만들어진 것이기에 거기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것은 저 혼자의 의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럿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그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여럿이 함께 오래오래 두고 그렇게 말하거나 노래했을 수도 있다.

만들어진 말의 이러한 의지-그것을 가리켜 ‘談論’이라는 다소 곱고 러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의 표상 작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삶의 방식’을 한 단계 더 압축한 ‘意味作用으로서의 文化’로 문학은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측면, 즉 의미 작용으로서의 문학은 필연적으로 가치의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그 가치는 사회적 힘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의 타당성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과정이 없는 문학의 수용은盲目이며 愚民의 노릇이다.

문학 감상의 과정 자체가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과정과 흡사한 경로를 거친다는 것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의 모든 형상은 그 전체와 부분 모든 국면에서 證據, 推論, 價值, 論證, 發見 등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하게 만들고, 事件과 事象 또는 事態들간의 관계에서 그것의 양립 근거를 따짐으로써 논리적 사고를 하게 만든다.

의미 작용으로서의 문학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참됨이며, 어떤 것이 착함이고, 어느 것이 아름다움인가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일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문학은 사고력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경험을 구체적 근거로 하면서 이를 가치의 기준에 비추어 보는 비판적 사고를 풍성하게 그리고 공론화하게 만든다. 그러고 보면 개인적 사고의 정당성이나 적절성을 조희하는 과정까지를 문학은 지니고 있는 셈이다.

#### IV. 思考力을 위한 文學教育의 設計

##### 1. 思考力 向上을 위한 文學教育의 指標

지금까지 문학과 사고력의 관계를 대충대충 짚어 보았다. 기실 문학은 여기서 이렇게 살피지 않더라도 사고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어떤 것보다도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사고력이라고 하면 연상하는 수학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학은 정의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므로 더 포괄적이고, 개념이나 규칙에 그치지 않고 형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이다.

문제는 그것을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豐饒化, 體系化, 內面化, 自由化의 네 방안을 생각해 본다.

豐饒化란 문학의 형상성과 경험성에 관련되면서 사고를 세련시키는 방법과 관계되는 설계다. 문학이 구체적인 경험을 드러내는 형상이라는 특성은 구체성, 경험성, 형상성 등의 용어로 앞에서 살핀 바 있다. 이 본질에 충실하면서 사고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그 다양성에 입각한 사고의 유연성을 겨냥해야 한다. 문학의 독서는 물론이요 문학적인 글쓰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을 갖는 민감성,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고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의구

성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민감성과 의구성은 구체적 형상인 문학이 지닌 다의성과 애매성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과 반응,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 내는 유추적 사고로 전개될 것이다.

體系化는 발견학습 또는 탐구학습의 그것처럼 일반화하고 범주화하는 상위인지적 활동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동화에 나오는 인물들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하여 문학적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구조화하고 짜임새를 갖추는 정교성, 그리고 이를 개념화하고 원리를 찾아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이러한 과정이 역전되어 있다는 점에 유념하는 것도 사고력 개발을 위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판서나 참고서의 설명들을 통해 얻는 것은 이미 개념화되어 버린 것이거나 남에 의해서 해석된 결과물이다. 교육이 능력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든 그러하거나와 능력이 주로 방법적인 것에 관계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는 '어떻게'라는 강조점에 주목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內面化란 문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사고활동이 생활의 태도 수준에 이르도록 설계해야 함을 가리킨다. 사고활동 지향적인 정의적 성향을 과제 집착성, 도전성, 호기심, 독자성 등으로 보는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읽고 쓰고 생각하는 일에 재미를 느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문학은 재미를 동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재미가 단순한 말장난이나 말초적 흥미로 흐르지 않으면서 알고자하고 더 찾아보고자 하는 욕구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흥미나 욕구는 자기 세계의 인정과 추구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작품 세계와의 대화를 촉진하는 장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며, 이야기 이어가기나 페러디의 습작도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自由化란 사고력의 공리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창의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부분이다. 문학은 근본적으로 창조 행위라는 점

에 비추어 보면 끝없이 만들어 내는 재미를 느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속성 중심의 문학관에 서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시, 소설을 쓰는 일은 그것의 관습이 지닌 완고함과 완성도의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나 부담스럽다. 따라서 문학의 한 속성을 중심으로 하여 문학적인 글을 써 보는 것은 귀중한 체험이 될 것이고 문학적인 능력으로 발전하는契機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사고 능력의 확장에 필요한 요소를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으로 보는 것과는 관계가 깊다.

또한 문학이 유추적 사고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감안하여 이런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은 전형적 틀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개인의 세계를 개발하는 자유화에 유용할 것으로 본다.

## 2. 思考力 向上을 위한 敎授-學習

사고력을 위해 문학의 교수-학습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을 구상하는 데는 문학의 본질이 언어의 속성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문학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로 이루어진 형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전통적인 수사학이 조직적 사고로 권장하고 있는 활동을 원용할 수 있다.

### (1) 定義

- 사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 그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 나는 그 말을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가?
- 이 말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 이 말에 포함되는 것들은 다른 것들과 어떻게 다른가?
- 이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 이 말이 그 전에 뜻하던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이 말과 같은 뜻의 다른 말이 있는가?



- 이것의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가?
- 이 말이 잘못 이해될 때는 어떤 때인가?

(2) 比較

- 이것과 비슷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비슷한가?
- 무엇이 이것과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 이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나은가?
- 이보다 못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못한가?
- 이것과 정반대 또는 상이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그런가?
-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그런가?

(3) 關係

- 무엇이 여기에 이르게 했는가?
- 이 일의 결과는 무엇인가?
-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일이 일어났는가?
- 그래서 어떻게 되어 갔는가?
-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4) 立證

-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무어라 말하는가?
- 이에 관한 사실이나 자료를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언가?
- 이에 대하여 누구와 말을 해 보았는가?
- 이에 관련하여 한, 유명한 혹은 널리 알려진 말을 아는가?
- 이에 관한 속담이나 시를 인용할 수 있는가?
- 이에 관한 법률이나 규칙이 있는가?
- 이에 관한 노래, 잡지 기사, 신문이나 방송 혹은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 이에 관하여 어떤 조사를 해 보기를 원하는가?

(5) 環境

- 이것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 어떤 여건이 그것을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하는가?
-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개연성이 있는가? 왜 그런가?
- 전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 누가 이 일을 실천하거나 경험하였는가?
-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 이 일이 시작된다면, 무엇이 그것을 끝맺게 하겠는가?
- 지금 이 일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무엇이 그 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가?<sup>8)</sup>

이상 다섯 가지 방향의 사고 목록은 본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을 가다듬고 구체화한 것이어서 언어를 운용하는 사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은 언어 일반의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수준의 교수-학습 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상위 수준의 문학적 특성을 形象性, 體驗性, 文化性으로 앞에서 살핀 바 있다. 문학의 이러한 특성을 통한 교육의 효과로서 성장이 이루어지자면 문학을 통한 사고 활동의 주체인 '자신의 세계'에 근거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블룸(Bloom, Benjamin)은 학습 위계의 피라밋을 知識(knowledge), 理解(comprehension), 適用(application), 分析(analysis), 綜合(synthesis), 評價(evaluation)의 여섯 단계로 구상한 바 있다.

문학의 교수-학습을 자신의 세계에 근거하는 주체성과 교육 일반의 학습 위계라는 두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한다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활동 범주를 구상할 수 있다.

#### 가. 기술하기(記述, describe)

사고 활동은 대상을 아는 일에서 비롯한다. 이는 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의 지표 가운데 체계화에 관계되며, 블룸의 학습 위계에서 첫 단계와 둘째 단계인 지식 및 이해와 관계된다. 글을 쓰기 위한 대상

8) Cowan, Elizabeth(1983), *Writing*, Scott, Foresman & Company, pp.26~32.

의 본질은 무엇이며,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작품 자체가 지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아는 구체성을 띤 사고로 이어진다.

#### 나. 비교하기(比較, compare)

대상의 정체나 특질은 다른 것과 대조 또는 비교할 때 구체화된다. 따라서 파악된 대상의 세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풍요화하기 위하여 많은 것과 비교해 보는 활동은 왕성한 사고 활동을 촉발하게 된다. blooms의 학습 단계 중 지식과 이해에 관련되며 문학교육의 지표 가운데 풍요화와 체계화에 관련된다.

글을 쓰려고 하는 대상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읽은 작품의 모든 측면을 주제가 비슷한 여타의 작품, 같은 작자의 다른 작품, 장르나 시대가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파악한다. 비교의 방법은 대상의 특징을 인식하는 문제 해결적 사고로 발전한다.

#### 다. 연상하기(聯想, associate)

대상 자체의 이해를 넘어서서 그것과 연관된 모든 것을 생각하는 힘은 사고의 풍요화와 자유화를 증진시킨다. blooms의 학습 위계에서는 이 단계의 활동이 구상되지 않았지만, 이는 언어 또는 문학이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다른 학습활동에서는 문학 만 큼의 상상이 요구된다고 하기 어렵기에 일반적이라 할 수 없다.

어떤 대상이 자신에게 환기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각나는 모든 것을 연상해 보고, 작품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한다. 언어 활동의 주체는 언제나 그 개인이므로 특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떠오르는지 연상함으로써 상상적 사고력이 길러진다.

## 라. 적용하기(適用, apply)

습득되고 이해된 것은 다른 대상 또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고 자신의 것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며 그 효용성 및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하나를 알아 열을 통하는 차원도 바로 이 단계로서 문학교육의 지표 가운데 풍요화, 내면화로 가는 길이 되며, blooms의 학습 위계에서도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관찰하고 파악한 대상을 두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작품에서 얻은 생각을 통해 무엇을 더 이해하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던 무엇을 더 파악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우리 삶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생각한다. 전환적 사고의 바탕이 된다.

## 마. 분석하기(分析, analyze)

blooms의 학습 위계에서도 넷째 단계로서 분석을 설정하고 있는바 대상에 대한 분석력은 풍요화, 체계화, 내면화, 자유화 모든 지표에 해당하는 상위 수준의 사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종래의 문학교육에서는 이 단계의 활동을 학생에게 실천하게 하지 않고 분석된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학습의 의의를 잃게 만든 혐의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신이 그것을 써 낼 수 있는 정도에 이를 정도로 분석한다. 인물, 플롯, 표현…… 등을 분석하는 힘은 그 흥미를 기반으로 분석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로 나아가게 된다.

## 바. 논란하기(論難, argue)

문학의 교수-학습은 '자신의 세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다. 대상이나 작품이 자신에게 던지는 의미를 평가하고 주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고 활동이다. 문학교육의 지표 모두가 이 단계를 위해서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blooms의 학습 위계 가운데 종합과 평가가 이에 관련된다.

그것을 지지하는 쪽에서, 혹은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서 근거를 대면서 생각해 본다. 근거의 종류를 다양하게 대고 구사하는 논리

를 다변화함으로써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이상의 여섯 가지 활동은 순차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최종 단계인 논란하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전부를 포함하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사고를 진전시킬 수 있으며, 풍요화, 체계화, 내면화, 자유화의 지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된다.

## V. 맺는 말-人間 世上의 文學敎育

지금까지 살핀 것이 문학교육의 모든 것일 수도 없고, 애당초 그럴 목적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문학과 사고력을 생각해 보려고 한 것은 문학이 이 방면에 지닌 공리적 미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문학과 함께 성장하고 문학과 함께 인간다워진다고 보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 더구나 요즘 우리 사회같이 공유할 가치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문학은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는 생각에 잠기게 한다. 그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사고력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힘'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특별한 훈련을 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학을 통한 사고는 그렇게 힘겨운 노력이 없이도 재미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문학은 사고력을 위해 매우 귀중하고도 효과가 큰 별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또한 요즘은 창의력이 강조된다. 21세기에는 그것 없이는 못 산다고 야단들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어디에서건 없던 것이 톱 떨어지는 일이 있었던가? 그런 일은 없었다. 시 한 줄을 두고 생각하는 그 많은 유추적 궁리 속에서, 소설 한 편을 읽고 사람들을 묶어 보는 범주적 사고 속에서 많은 것은 발견된다고 나는 믿는다. 문학적인 글을 쓰기 위한 관찰과 이해라는 경험 과정에서 새로운 것은 창출된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모두 창의적이겠지만, 창의적이라고 해서 모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것이면서도 인간다워야 하고, 인간의 삶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야 한다. 창의성이라는 말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인간다움과 의의를 아울러 포괄하는 국면을 우리는 문화라 하며, 인류의 역사는 이 문화 개발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문화란 자연적 상태에 대립하는 인위성을 뜻하면서, 또한 지적·정신적 활동을 뜻하고, 나아가 삶의 방식이면서 의미를 창출하고 소통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논의는 대립적이고 이해 다툼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인간의 인간 다움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인간을 禽獸와 구별짓는 특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문화의 윤리성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일기도 한다.

언어활동은 문화의 중핵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문학은 인류의 문화 자체이면서 촉진제이자 매체가 되어 왔다. 창의성에 이르려고 하는 사고가 문학을 기반으로 할 때 의미 있는 것이 된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글을 짓고 읽는 활동인 문학의 향유가 단순히 문학을 즐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고력 개발에 의미 있는 장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기에 문학교육은 단순히 문학을 아는 데서 그칠 수 없으며, 인간다움의 추구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순한 흥미만을 추구하는 문학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으며, 문학작품의 질이 감동으로 요약될 수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문학교육의 총체적 성찰이 필요한 까닭은 이런 데서도 재삼 확인된다.

세계화가 강조되고, 문화의 세계적 보편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민족적 정체성이 중요해진다는 점에서도 사고의 문화적 요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한 문화는 존재의 의의를 상실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고, 고유성이 곧 보편성이면서 세계성이라는 본질적 인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인간의 존재론적 의의가 ‘나, 민족, 인류’의 관계망 속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문학교육이 곧 사고력의 교육임을 우리는 재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길임을 확신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그 지표와 방법의 정당한 설정과 추구이다.

《 참고문헌 》

- 김대행(1997), 「국어과교육의 목표와 영역」, 『선청어문』 제25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송준만(1981), 『정신문화와 두뇌』, 교문사.
- Cowan, Elizabeth(1983), *Writing*, Scott, Foresman & Company.
- Dacey, John S.(1989), *Fundamentals of Creative Thinking*, Lexington Books.
- Lipman, M & Sharp, A. M.(1986), *Growing up with Philosophy*, 여훈근 외 옮김, 『세 살철학 여든까지』, 정음사.